

5월13일 월요일

에스더 5장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다

사흘의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왕 앞에 나오는 에스더를 보고 왕은 사랑스럽게 느꼈고,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 앞에 자신의 요구를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담대하게, 그러나 염려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나요? 에스더처럼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께 발맞추어 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6장 왕이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하다.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다녀온 하만은 우쭐하여 모르드개를 죽일 생각을 하고 50규빗(23m) 높이의 나무를 세웠던 그날 밤, 웬일인지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던 중, 모르드개가 암살 음모를 고함으로써 자기가 목숨을 건진 일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성중을 다닌 사람은 누구였나요?

7장 하만의 몰락

둘째 날 왕후의 잔치에 하만과 함께 나아간 왕은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인지 오늘은 말하라고 권할때, 에스더는 무엇을 요청하나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 )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 )을 내게 주소서.

8장 유다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다.

하만의 조서로 두려워 떨며 살아야 했던 유다인들에게 모르드개가 보낸 조서(11절)가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개의 조서가 전해졌을 때 수산성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랐나요?

1) 하만의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3:15):

2) 모르드개의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8:15):

5월14일 화요일

9장 유다사람이 대적들을 진멸하다.

하만에 의해 작성된 조서가 실행될 12월 13일이 왔는데 또한 이날은 모르드개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가 시행될 날이기도 했습니다.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에 유다의 대적들을 멸하였고, 14일과 15일을 기념절기(부림절)로 삼았습니다. 이날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한 2가지 일은 무엇인가요? (22절)

10장 왕과 모르드개가 높임을 받다

본장에는 이 모든 일이 마친후, 유다민족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한 모르드개가 바사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모르드개는 유다인들에게 크게 ( )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 )을 받았으며,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모든 종족들을 (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르드개처럼 온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욥의 첫 번째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13~19절). 사탄은 네 가지 면에서 욥을 쳤습니다.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으며,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만아들의 집에서 잔치할 때 태풍이 와서 집을 덮쳐 모두 압사하고 말았습니다. 욥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사탄은 단 한 순간에 모두 흩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들은 욥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20절)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 )하며."

2장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

욥에 대한 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1) 소유물 2) 몸 3) 자녀들 4) 생명

5월15일 수요일

3장 욥의 탄식, 침묵하시는 하나님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어서 그는 절망하고 있고,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불행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한탄어린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표현된 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써 보세요.

4-5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설명

본장에서 엘리바스는 궁극적으로 의인은 망하지 않으며,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욥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하는 위로의 신학적 기초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4:8절) 엘리바스는 더 나아가 욥이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을 잘 받으면, 즉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5:17-26절) 자신의 체험과 생각만으로 욥을 위로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5:17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단정하나요?

6장 욥의 대답

엘리바스의 옳은 말이 욥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25). 그의 옳은 말이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말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의 잘못된 적용 때문 이었고, 자기 논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려는 사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고아를 제비 뽑아 팔아버리는 것처럼 잔인한 일이라고 욥은 항변합니다(27절).

욥은 죽기를 열망할 만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

5월16일 목요일

7장 욥의 대답

6장에 이어 본장에서 욥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며,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자신을 향해 쉽 없는 징계를 가시는가 하고 비탄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살기보다 오히려 죽기를 바라는 욥의 마음이 담긴 요절을 찾아 보세요.

8장 빌닷의 첫 번째 설명

앞의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말을 했다면, 빌닷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에 근거하여 말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욥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4절)

(빌닷은,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거나 심판이라는 것만을 알았을 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9장-10장 욥의 대답

빌닷이 주장하는 대로, 욥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9장) 절망 속에서도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9:33)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던 욥의 소망은 다시 10장에서 약해집니다. 욥은 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한, 자신의 무고함을 그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영적인 고통과 혼란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10:2)

5월17일 금요일

11장 소발의 첫 번째 설명

소발의 말은 욥에 대한 정죄와(2-3절), 경멸 어린 질책으로 시작합니다(4-5절).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한 뒤에 누릴 축복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할 때, 신앙의 단순 논리를 적용하여 회개하라 고만 한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 )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2)

12장-14장 욥의 답변

12~14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발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욥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장에 걸친 욥의 말에는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에 관련된 욥의 두려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은 욥 자신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15절에서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고 한글성경에서 기록하지만, 영어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라는 욥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14장에서 욥은 깊은 낙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만 말하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시고 자기를 파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욥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절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14:15절을 써 보세요.

5월18일 토요일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설명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다 못하여 다시 욥을 공격합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 것이며(4),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13),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전능자를 배반하는 행위(25)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욥이 겪는 고난을 위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만 단정짓고 판단하는 엘리바스는.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 )이라. 네 ( )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16-17장 욥의 대답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들은 욥은 자기 옆의 세 친구들을 형편없는 상담자들과 묘사하고 있습니다 (16:1-5). 그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고(16:2), 무의한 지혜자들일 뿐입니다(17:10). 하지만 욥의 절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 욥이 가졌던 희미한 소망은 꺼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확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 )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 )가 높은데 계시니라"

18장 빌닷의 두 번째 설명

빌닷은 욥을 맹비난합니다. 자신들의 조언을 조금도 듣지 않는 욥을 향하여 이제는 좀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2). 빌닷은 욥을 아예 불의한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합니다. 그것을 몇 절 말씀에서 알 수 있나요?